

현대·기아차 엔진 결합 국내외 147만대 리콜

2013년 8월 이전 생산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대상
 국내 그랜저·쏘나타·K7·K5·스포티지 17만1348대
 美서 쏘나타·싼타페·K5 119만대, 캐나다서 11만대
 현대차 "추가 검사후 결합엔 엔진교체"... 소비자 "늑장대응"

글로벌 경기 침체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여파로 인한 중국 판매 급감 그리고 엔진 결합 관련 대규모 리콜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자동차기업 현대·기아차가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위기에 빠졌다. 판매 관련 악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품질 신뢰도와 직결된 리콜 사태까지 터졌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북미에서 현대·기아자동차 147만대 차량이 세타2 엔진의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그랜저(HG), 쏘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 등 국내 5개 차종 17만1348대에서 세타2 엔진의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으로 그랜저 11만2670대, 쏘나타 6092대, K7 3만4153대, K5 1만3032대, 스포티지 5401대다. 이는 최근 5년간 단일 사안으로 리콜된 사례 중 현대차 아반떼 등 19개 차종(82만5000대·2013년), 르노삼성 SM5·SM3(39만2000대·2015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앞서 국토부는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의 일부 모델에서 엔진 소착(마찰열로 인해 접촉면이 달라붙는 현상)으로 인해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언론 보도와 소비자 신고가

이어지자 작년 10월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맡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에서 소착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과 함께 이것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 결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지난달 말 국토부에 보고했다.

당초 국토부는 세타2 엔진에 대한 리콜이 필요하지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20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대차가 지난 3일 국토부에 자발적인 리콜 시행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전날 리콜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작결함 조사를 종료하고 시정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하기로 했다.

현대차의 리콜계획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 엔진은 크랭크 샤프트라는 엔진 부품에 오일 공급 구멍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해당 공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하는 바람에 크랭크 샤프트와 엔진 내 다른 부품인 베어링의 마찰이 원활하지 못한 소착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엔진 파손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현대차는 전체 리콜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소용 정도를 측정하는 등 추가 검사를 한 뒤 결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한해서만 새롭게 개선한 엔진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리콜 개시 시점은 새 엔진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 엔진 수급 상



현대·기아차 리콜 대상 5개 차종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GDI) 장착 차량 대상 리콜 실시			
모델 / 생산기간	엔진 사양	대상 대수	총 17만 1,348대
그랜저 (HG) 2010.12월 ~ 2013.8월	2.4GDI	11만 2,670대	
쏘나타 (YF) 2009.7월 ~ 2013.8월	2.4GDI / 2.0Turbo-GDI	6,092	
K7 (VG) 2011.2월 ~ 2013.8월	2.4GDI	3만 4,153	
K5 (TF) 2010.5월 ~ 2013.8월	2.4GDI / 2.0Turbo-GDI	1만 3,032	
스포티지 (SL) 2011.3월 ~ 2013.8월	2.0Turbo-GDI	5,401	

황, 리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5월 22일로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차량 결함을 조속히 시정해야 하는 만큼 현대차의 리콜계획을 우선 승인했다"며 "추후 리콜방법, 대상 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은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는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2011~2012년식 쏘나타(YF) 약 47만대를 리콜했고 2013~2014년식은 보증 수리 기간을 연장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소비자들이 세타2 엔진의 결함을 주장했으나 현대차는 "미국 현지 공장의 생산공정 청정도 관리 문제로 발생한 사안이라 국내 차량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야 자진 리콜을 결정하면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 리콜 역시 생산공정의 청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며, 현대차가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증거가 있는지를 별도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늑장 리콜' 의혹에 대해 현대차는 "2015년 미국에서 한 리콜과 이번 국내 리콜은 원인이 전혀 다르다"며 "미국 리콜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현상이었다"고 해명했다.

현대차는 "작년 10월부터 국토부의 제작결함 조사가 성실히 협조해왔다"면서 "보증수리 기간 연장 후 이전보다 많은 고객이 점검을 받게 되면서 해당 문제 가능성을 발견, 분석한 결과 리콜 사안이라고 판단해 국토부에 바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현대차는 미국에서 쏘나타(YFa), 싼타페(AN), K5(QF·현지명 옵티마), 쏘렌토(XMa),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19만160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다. 캐나다에서도 총 11만여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확정했다.

북미 역시 세타2 엔진 관련 리콜이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한국과 다르다.

두 나라에서 불거진 세타2 엔진 결합은 '크랭크 샤프트 핀'이라는 엔진 부품의 표면이 균일하게 가공되지 않은 게 원인이다. 이로 인해 엔진 소음과 진동이 심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연합뉴스

현대·기아차 美 하이브리드카 시장 점유율 10% 돌파

‘니로’ 선전 ... 지난달 총 4358대 판매

현대·기아차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니로'의 선전에 힘입어 미국 하이브리드카 시장 지배력을 점차 키워가고 있다.

9일 미국 하이브리드카즈닷컴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니로 2704대, 쏘나타 하이브리드 1082대, 아이오닉 327대, K5 하이브리드 245대 등 총 4358대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7.8%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시장 점유율은 13.6%로 2월(13.7%)에 이어 2개월 연속 10%를 넘어섰다. 1분기 누적 점유율도 11.6%를 기록하며 연간 누계 점유율 기준으로 10%를 처음 넘어섰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처음 두자리 수 점유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하이브리드카 시장에서 매년 7~8%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7.2%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올해 현대기아차의 이 같은 점유율 확대는 지난 2월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니로의 선전에 힘입은 것이다.

슈퍼볼 광고에서 화려하게 데뷔한 니로는 지난 2월 출시되자마자 2143대가 판매돼 곧바로 모델별 판매 순위 4위를 꿰찼다.



기아차 '니로'

미국에서는 지난달부터 아이오닉까지 판매에 가세했다. 이번 달부터 아이오닉의 판매가 본격화되면, 현대기아차의 미국 하이브리드카 시장 내 지배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달 미국 하이브리드카 판매는 3만2012대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했다. 1분기 누계로도 8만2939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9%가 늘

어나는 등 판매가 9.7% 줄어든던 지난해와는 달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니로의 초반 신차 효과가 매섭게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니로와 아이오닉의 흥행 여부가 미국 하이브리드카 시장의 판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산차 소유주 30%, 다음차 살때 수입차 고려”

SK엔카닷컴 설문조사

“벤츠 소유주 43% 다음에도 벤츠”

SK엔카닷컴은 최근 SK엔카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산차 소유주의 30%는 다음차로 수입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밝혔다.

SK엔카닷컴은 3월 한 달간 SK엔카 홈페이지에서 현재 타고 있는 차와 다음에 구입을 고려하는 차의 모델명을 주관식으로 물었으며, 설문에는 총 2천604명이 참여했다. 이 중 86%는 국산차 소유주, 나머지 14%는 수입차 소유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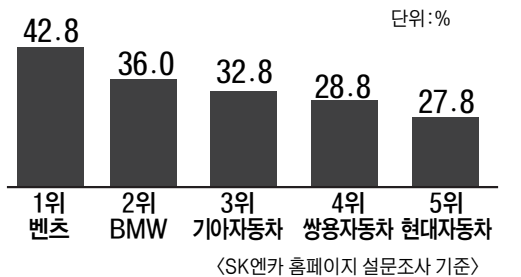
설문 조사 결과 국산차 소유주의 70%는 다음차로 국산차 구입을, 나머지 30%는 수입차 구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차 소유주의 경우 83%가 다음에도 수입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고, 17%는 국산차 구입을 고려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타고 있는 차와 다음에 구입을 고려하는 차의 브랜드를 비교한 결과 메르세데스-벤츠 소유주의 42.8%는 다음에도 벤츠를 구입할 것이라고 응답해 재구매 의사가 가장 높았다.

이어 BMW가 36.0%로 2위, 기아차가 32.8%로

■ 다음에도 지금 타는 차와 같은 브랜드의 차를 구입하겠다.



3위를 차지했고, 쌍용차(28.8%)와 현대차(27.8%)가 뒤를 이었다. 이어 폴크스바겐(25%), 쉼보레(19.3%), 르노삼성(14.9%) 순이었다.

자동차 구입 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내구성 및 안전성'이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20.4%), 가격(16.0%)이 뒤를 이었다. 브랜드는 3.9%에 불과했다.

SK엔카 사업총괄본부 박홍규 본부장은 "자동차 구입 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브랜드 외적인 부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갑수족 소비자들이 과거보다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적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부 062.220-0551

<p>초대 화랑</p> <p>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p>	<p>고 전 방</p>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062)224-4869</p>	<p>고 흥 나 루 터</p> <p>동구 지산동 705-9 (법원 뒷길) 하모(참장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p> <p>대표 모복자 ☎062)222-3092</p>	<p>동 양 철 학 원</p> <p>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062)224-7687, 010-2611-7687</p>
<p>6·92 (육구이)</p> <p>북구 우산동 중문로 33-1번길 (우산초등학교 후문입구) 간성숯불석쇠구이, 숯불구이, 석쇠숯불곱창 석쇠숯불막장 배달전문점</p> <p>☎062)464-0692</p>	<p>맘스터치 빛가람1호점</p> <p>전남 나주혁신도시 빛가람중학교앞 단체주문 및 예약환영 "전화로 주문하시고 15분후에 매장을 방문하시면 바로 찾아가실수 있습니다."</p> <p>☎061)333-2256</p>	<p>바른글씨교정원</p> <p>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담전문사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생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감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p> <p>☎062)525-9933, 010-8703-3378</p>	<p>갤러리 봄</p> <p>동구 예술의 거리 20-6 회화, 설치, 조각 등 다양한 작품전시장</p> <p>대표 최정화 ☎010-9078-1800</p>
<p>우 청 미 술 관</p> <p>동구 금남로2가 31번지 한국 채색화(만화) 연구소</p> <p>대표 김생수 ☎062)383-8408</p>	<p>행복공인중개사</p> <p>동구 중앙로 218번지 고객만족, 책임중개</p> <p>대표 강인철 ☎062)225-3303</p>	<p>으뜸공인중개사</p> <p>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p> <p>☎062)263-5383, 010-6338-5383</p>	<p>신 신 예 술 의 집</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양 지 공 인 중 개 사</p>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아, 토지, 경매, 권리분석</p> <p>대표 전환양 ☎062)263-2223</p>	<p>박 당 화 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환승 ☎062)222-6866</p>	<p>석 당 화 랑</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토 산 철 학 원</p> <p>북구 두암동 예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p>대 풍 쌀 농 산</p> <p>북구 서방로 39번길 9-2 (중흥평화맨션입구) 일반미, 찰쌀, 보리쌀, 현미, 서리태, 팥, 들깨, 녹두, 참깨 등 잡곡 도·소매</p> <p>대표 박경열 ☎062)267-0101, 010-3609-7117</p>	<p>한 마 음 정 육 식 당</p> <p>북구 용봉동 159-9 (북구정 전대후문) 정육식당형 돼지고기전문점 돼지머리(1kg) 37,000원, 돼지발머리(500g) 19,000원, 국내산생삼겹(250g) 12,000원</p> <p>대표 김진표 ☎062)261-8292</p>	<p>국 수 나 무 용 봉 점</p> <p>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p> <p>☎062)526-5475, 010-8621-5959</p>	<p>천 수 사 백 마 장 군</p> <p>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정보빌딩로 인생상담,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어로 합니다.</p> <p>대표 허길배 ☎010-2828-2008</p>